

‘탈석탄’ 막막한 광부들 “우린 막장에서 일하고 싶다”

석탄광사노조 화순지부 파업 투표 현장

“가자, 막장으로. 죽어도 막장에서 죽자!” “정부의 석탄광사 생산중료 저지, 총파업으로 저지하자”

지난 10일 오전 6시 50분 화순군 동면 북암리 대한석탄광사 화순광업소. 탄광 경도에서 약 500m 떨어진 사무실 앞 광장이 광부들의 외침으로 찰랑찰랑 울려퍼졌다. <관련기사 3면>

머리에는 ‘단결 총파업’이란 글씨가 적힌 붉은 띠를 매고, 상체엔 ‘단결 투쟁’이라는 흰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힌 조끼를 입은 남성 50여 명이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로 뻗으며 정부의 석탄 감산 정책을 규탄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라 석탄광사 향후 채탄량이 총 100만t 수준으로 묶이면서 화순탄광 등 전국 3곳의 석탄광사 산하 탄광이 이르면 3년 내 문을 닫게 되자 광부들이 ‘생존권 사수 총파업’ 투쟁에 나선 것이다.

약 10분간의 결의대회가 끝나고 오전 작업조에 속한 50여 명이 사무실 앞 광장 한편에 마련된 투표장으로 줄줄이 이동했다. 석탄광사 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2가지 안건을 조합원 투표에 부쳤다. 정부 생산중료 저지를 위한 총파업 건, 강원 장성·도계, 전남 화순 광업소 동시 폐광 건을 놓고 강원 원주 분사와 3개 광업소에서 전체 노조원 670명에게 찬반 의사를 물었다. 이날 오후 작업조 출근과 곧이어 오후 5시 종료된 투표 결과, 두 안건 모두 조합원 찬성을 96.3%를 얻어 총파업은 가결됐다.

이를 두고 노조 측은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 감산 정책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바라는 노동자의 요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석탄이 필요 없다면 3~4년 말미를 주고 우리를 서서히 말려 죽이지 말고 차라리 지금 당장 탄광 문을 닫자는 게 우리들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광산노동자들이 매물 사고와 진폐증 등 목숨을 걸고 캐낸 석탄 덕분에 산업화시대 국가 산업과 경제 발전, 서민들의 겨울 나가기 가능했는데 기술 발달로 대체 에너지가 공급되면서 석탄을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는 것을 넘어 정부가 광산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도 됐다. 석탄광사 노조는 조합원 투표 결과를 토대로 비상대책위 논의를 거쳐 향후 파업 일정 등 투쟁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정부, 생산량 100만t 한도 설정 3년 내 폐광... 총파업 96% 찬성
“탄소중립·탈석탄 세계적 조류 노동자들이 무슨 수로 막겠나 전업지원금마저 줄어들 듯 광부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라”

그러나 석탄광사 노조 측은 총파업 결의를 두고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탄소중립·탈석탄이라는 세계적 조류에 발맞춰 수립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데다, 지난해 말 국회 국정감사에서조차 석탄생산 감산에 따른 중도 퇴직자 전업지원금 과다지급 등 예산 낭비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 지적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석탄감산 방침에 더해, 올 초 중단 퇴직자 전업지원금 축소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손병진 석탄광사 노조 화순지부장은 “탈석탄이라는 정부 방침을 저지하러 감히 어떻게 거부하겠나. 세계적 흐름을 우리 노조가 어떻게 막아냈느냐”며 “우리의 주장은 갑작스러운 폐광 말고, 노동자들에게 폐광에 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지부장은 “정부의 방침 변화가 없다면 화순 등 전국의 석탄광사 광업소 3곳은 3~4년 뒤 폐쇄된다. 저희 같은 50대 광부는 어떻게든 먹고 살지만, 30~40대 조합원들은 2~3년치 연봉 수준의 전업지원금을 받고 막장에서 내몰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화순광업소 사무실 앞 광장에는 ‘투표권 없는’ 사람들도 노조의 찬반 투표를 물끄러미 지켜봤다. 화순광업소 12개 협력사 관계자들과 노동자들도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광업소가 폐쇄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이들은 석탄광사 노조원 등 직원 118명과 협력사 직원 196명 등 모두 314명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화순광업소가 폐쇄될 경우 협력사 직원도 포함해 300여명과 그 가족을 포함하면 1000여명 가까운 주민들의 생계가 막막해 지는 것”이라며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광산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화순=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여천NCC 폭발 사고 4명 사망 4명 부상 ▶6·7면
차민규·최민정 ‘이토록 소중한 은메달’ ▶18면



국회의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주말인 12일 오후 정책홍보 열차를 타고 여수와 엑스포역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3·9 대선’ 막 올랐다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일제히 후보등록

차기 정권을 향한 대선 쟁탈전이 13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3월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양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간 대혼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남은 기간 정권 재창출이나 정권 교체냐를 놓고 여야간 명운을 건 총력전이 펼쳐진다.

<관련기사 3, 4면>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선 D-24일인 이날 일제히 후보등록을 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부터 22일간의 피말리는 대선평전에 돌입한다.

투표일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판세는 안갯속이다. 일단,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4자 구도 속에서 전체적인 판세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강 구도로 좁혀진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35~40% 선에서 박빙 경쟁하고 있다. 양강 구도에서 뒤처진 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대안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후보 단일화가 막판 판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만약 야권 후보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안 후보에게 분산돼 있던 중도층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현재의 팽팽한 균형이 무

너지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의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윤 후보 측이 여론조사 방식보다는 후보간 담판에 따른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안 후보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안 후보는 국민경선형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 주장을 내놓으며 여주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 측도 통합정부·국민내각론 등을 내세워 안 후보와의 공조 여지를 열어두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안 후보와의 연대 및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의 4자 구도가 유지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양강 후보가 본인과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으로 거론된다. 호남 민심의 향배도 주요 변수다. 호남 민심이 막판 결집, ‘이재명 바람’을 만들어 내거나 오히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호남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 유지할 경우, 막판 판세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3차례 진행될 TV토론 등도 중요 변수로 거론된다. 최종 승자를 가릴 열쇠로는 20~30세대의 표심 향배와 중도·부동층의 선택이 꼽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석열 후보 ‘열정 열차’ 여수·순천서 “호남발전”

국회의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전남을 찾아 ‘호남발전론’을 언급하며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정책 홍보 전세 열차 ‘열정 열차’의 첫 목적지로 호남을 정한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주말인 이날 오후 열차를 타고 전북에 이어 순천과 여수를 잇따라 방문, 전남지역 공약과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며 표심에 다가서는 모습이었다.

윤 후보는 이날 크게 8가지로 압축되는 전남지역 대선공약을 직접 읽어내가며 “전남을 미래 선도산업과 대한민국 신성장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법안, 예산안, 각 지역 민원 처리 등 그동안 저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미흡했다. 이제 국민의힘은 변할 것”이라며 “호남이 잘사는 게 대한민국이 변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호남출대론이 아니라 호남발전론을 펴겠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체 국민을 보고 정치하도록) 국민의힘이 어마어마하게 변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수에서 순천으로 가는 기차에서 여수사건 유족을 만나서는 “(이념 등을 떠나) 여수사건에는 무고한 국민의 희생이 있었다.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라며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돼 국민에게 알려지도록 당차원에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아이오페

SUPER CLUB

아이오페 베스트 상품 구매하면
슈퍼클럽 자동 가입!

아이오페 슈퍼클럽 가입 방법

아이오페/한울 베스트 상품을
아리따움 매장, 마트 화장품 매장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 구매시
자동 가입됩니다.

대상 제품

레티놀 엑스퍼트 0.1%, 0.2%, 0.3% (MINI 제외)
바이오 셀룰러 에센스 쓰리 펠티드
슈퍼바이옴 에센셜 크림 리치

한울
극진 에센스 기화세트
극진 크림 기화세트

※ 슈퍼클럽 회원 유지 기간은 구매일 포함 3개월까지 유효합니다.
※ 기간 내 재구매 시, 구매 당일 포함 3개월까지 회원 유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아이오페 슈퍼클럽 혜택

01

아이오페 전 품목 (MINI 제외)
한울 일부 품목
[극진, 백화고, 세살썩 라인]
바이탈뷰티 일부 품목
[슈퍼클러진 프리미엄, 홍삼 진액수]
10% 추가 할인

02

레티놀 구매 시 (MINI 제외)
5천원 슈퍼쿠폰 증정
[레티놀 및 쿠폰 제외 상품 적용 불가]

※ 슈퍼클럽 10% 추가 할인은 타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됩니다.
※ 슈퍼클럽 10% 추가 할인은 주문/결제 단계에서 자동 적용됩니다.
※ 슈퍼쿠폰은 주문/결제단계에서 쿠폰 적용이 가능합니다.
※ 슈퍼쿠폰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레티놀 엑스퍼트 0.1% MINI는 아이오페 슈퍼클럽 혜택에서 제외되며, 1인당 하루 최대 5개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 환불 시 슈퍼클럽 등급은 종료되며 지급된 혜택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